

환경·미래세대 위해 유기농 육성 집중

전남도, 올해 1484억 들여 품목 다양화·청년농 키워

전남도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올해 유기농업 확산, 과수·채소 등 품목 다양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총 1484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한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 확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85억원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 조성 56억원 ▲유기농 생테마를 육성 10억원 ▲도양개량제 공급 169억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172억원 등 8개 사업에 552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실천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 148억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43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137억원 ▲친환경 육성기금 융자사업 70억원 ▲친환경 포트 육묘 이익기 및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19억원 등 8개 사업에 412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400억원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30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15억원 등 5개 사

업에 520억원을 쓴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이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올해 유기농업 확산과 과수·채소 중심의 인증 품목 다양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고소득 농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남지역 총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만344ha로, 전국 인증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유기농 인증면적은 2만5816ha로 전국 인증면적의 64%에 달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올해 온실가스 161만 감축

전략별 97개 사업 6382억 투입

전남도가 1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1년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 및 2022년 161만 감축 추진계획 등 제2차 온실가스 감축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다짐했다.

전남도는 올해 97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6382억원을 들여 온실가스 161만을 감축하기로 했다.

전략별 주요 사업은 ▲청정에너지는 신안 해상 풍력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도민발전소 운영 등 28개 사업에 101만 감축 ▲청정생활은 전기·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탄소중립 도민 실천운동 전개, 스마트팜 등 친환경농업 등 29개 사업에 33만 감축 ▲청정산림은 배출권거래제 산림상쇄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숲, 지방정원 조성 등 23개 사업

에 27만의 온실가스 흡수 등이다.

여기에 ▲청정산업 분야에선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RE100 시범산업단지 조성 등 17개 사업을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1년 91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총 사업비 5187억원을 들여 감축목표 131만 중 92.9%인 122만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탄소중립 비전 핵심 전략별로 ▲청정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등 56만 감축 ▲청정생활은 전기·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등 35만 감축 ▲청정산림은 경제수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 도시 숲, 치유의 숲 조림 등 31만 흡수를 달성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에픽 본사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주)에픽(EPIC) 본사를 방문해 최성식 대표이사사와 면담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 시즌2'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등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전면 철거 재개발 정비 방식 공동체 보존 전환

'2030 도시·주거환경계획' 수립

광주시가 전면철거 재개발 중심의 도시·주거환경 정비 방식을 공동체 보존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 새로운 주거 및 도시정비 방향과 기준을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제시했다.

시는 "2025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거정비사업 예정구역 118개소 중 준공된 지역 및 현재 미추진 구역을 해제하고,

정비예정구역을 50개소로 조정했다.

또 기존 전면 철거위주의 정비방식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권을 30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별 29개 주거환경지표를 설정·분석해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지 보존 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광주시 전역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생활권 주거환경지표 분석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기본계획 책자 열람은 광주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건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2030년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중심 중심의 공동체가 조성되도록 후속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내년까지 통행료 감면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을 위해 '광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다.

통행료 감면 대상은 사용 분거지 주소가 광주시 이면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1600cc 미만)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다.

친환경차량 통행료 감면을 위해서는 대상 차량 소유자가 광주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첫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소상공인 500명 경제적 부담 완화 전기차 수요 창출 기업 성장 도움

전남도가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힘든 도내 소상공인 500명에게 e-모빌리티 리스료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도내 e-모빌리티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도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에서 생산한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를 리스 계약 체결할 경우에만 지원한다. 대당 할인금액은 초소형전기차 월 10만원, 전기이륜차 월 2만 5000원이다.

이는 리스계약(24개월) 체결 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리스료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지원금 외

나머지만 자부담하면 된다.

전남도는 도내 생산 초소형전기차와 전기이륜차의 우선 구매를 위해 추가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으나 구매 시 일시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이 따른다. 리스료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 분산효과뿐만 아니라 리스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연 최대 100만 원가량의 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전남도는 오는 21일부터 리스상품 계약 및 문의 응대에 들어간다. 신청서 접수 일정, 제출 서류, 지원 대상 차종 등 자세한 사항은 18일부터 전남도(www.jeonnam.go.kr) 또는 각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뿐만 아니라 e-모빌리티 제품의 수요 창출로 전남 e-모빌리티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현장 의견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전국 최초 예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3월부터 3000여 명 혜택 기대

광주시는 "문화예술인이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예술인 특화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문화예술인 대상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달 중 보험사 선정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보장을 개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 증명 등록을 완료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이며, 보장범위는 상해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등으로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보험사 선정 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3000여 명

의 지역 예술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9월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광주시,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교수,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치 TF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안 마련과 다양한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2021년 광주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연구'에 따르면 창작과 실현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인은 22.1%였으며, 상해 후 개인이 전액 부담해 치료한 비율은 90.3%였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문화예술인은 33.6%에 불과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배 나주곰탕 말고 또 있어?

몰라도 너무 몰랐던 천년고도 나주의 매력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펼쳐진다

나주의 전설과 매력적인 역사문화를 찾아서 흥어·나주곰탕의 원조에서 즐기는 살아있는 맛 굽이 도는 영산강가 카페에서 차 한잔 어떠세요?
송일준 PD와 함께

송일준PD 제주도 한 달 살기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여행 분야 스타디자이너

송일준 PD 제주도 한 달 살기 (1인 1권 440쪽 | 16,000원)

스타북스 Tel: 02-723-1188 | Fax: 02-735-5501 | 이메일: starbooks22@naver.com